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새내기 신문에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

지난 10일자로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은 예년처럼 새내기 맞이 특별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된 신문은 우리학교에도 배포되었고(17일) 총학생회는 이 신문을 OT기간에 맞춰 배포하려고 했습니다.

신문은 '대학생활/교육/통일/촛불시위/반미(미군범죄)'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와 몇몇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미군범죄를 다루는 지면에서 1992년 일어난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기지촌 여성이 미8군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심한 구타와 성폭행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살해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처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사진이 편집 없이 그대로 실렸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신문이란 매체에 처참한 사진이 여과 없이 실렸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총여학생회에서 아직 배포하지 않았던 신문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일단 신문배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날 새벽(18일) 이미 교문 앞에 신문 한 묶음이 배포되었었는데 곧바로 전량 수거하였습니다. 결국 학교 안에서는 그 신문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는 우선, 공개적인 신문이라는 매체에 처참한 살해장면이 실린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신문의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이후에 공식적인 신문을 발행할 때나 배포할 때 보다 신중하게 학우들의 입장에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윤금이씨 사진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처참합니다. 그만큼 사진 그 자체는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과 끔찍함을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폭로하는 방식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금이씨 사진은 여성의 몸이 적나라하게 폭행당한 사진으로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11기 한총련(건)의 본질적 문제의식과 의도를 왜곡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금이 씨의 사진 게재가 '미군범죄에 대한 민족의 감정적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나, '한 여성의 몸에 새겨진 고통과 죽음을 이용'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은 11기 한총련(건)의 문제의식을 왜곡하는 결과는 낳는다는 것입니다. 윤금이 씨에게 폭력을 자행한 것은 주한미군이며 11기 한총련(건)은 그 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하기 위한 방도로 사진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여성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선정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주장은 대중에게 비취질 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제기 방식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비판과 주장에 앞서 이해와 토론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미 신문을 배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학내에 공개적인 한총련 비판자보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었음에도 폭로성 입장글을 학내에 게재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보다 책임있는 논의로 이번일을 논의할 것이며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내에서 논쟁이 되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군장갑차 압사사건으로 불거진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한미관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범죄를 근절시키거나 SOFA를 개정하기 위한 시민, 학생운동이 보다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다시는 윤금이씨나 미선이 효순이와 같은 희생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애정어린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